

불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불가리아

(Republic of Bulgaria)

I. 일반개황

면적	111천 km ²	G D P	395억 달러(2007년)
인구	7.64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5,173 달러(2007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Leva(Lv)
대외정책	친서방 우호관계	환율(달러당)	1.43(2007년 평균)

- 불가리아는 2007년 기준 세계은행 발표 1인당 GNI가 4,590 달러로 EU 국가 중 가장 낮은 국민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 시설 및 제도면에서도 낙후된 편임.
- 주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이 뒤쳐져 있고, 정경유착 등 부패가 성행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신흥국들이 모두 재정수지 악화 문제에 직면에 했는데 반해, 불가리아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경제적 강점으로 꼽히고 있음.
-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로 인해 단기 간에 ERM-II로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 도입은 2014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제성장률	6.6	6.3	6.3	6.2	5.5
재정수지 / GDP	3.4	6.4	2.7	3.5	3.5
소비자물가상승률	6.4	5.0	7.3	8.4	9.7

자료: IMF, EIU.

□ 꾸준한 6% 수준 경제성장률 달성, 2008년 소폭 하락 예상

- 2004년 EU 가입 이후 자본유입에 따른 총투자 증가로 매년 6%가 넘는 GDP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부문도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07년 GDP성장률이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타 산업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농업부문을 제외할 경우 8%의 GDP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09년에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도 다소 둔화되어, GDP성장률은 5.5~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GDP성장률: 1분기 7% → 2분기 6.3%

□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임금상승률이 향후 물가상승 수준 결정

-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흉수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및 담배·주류제품에 대한 세율 상승으로 7.3%를 기록한 이후로 줄곧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적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종 관리가격 인상, 국내 여신 급증으로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4%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들어 물가상승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분기 13.3% → 2분기 15.0%

- 2008~09년 물가상승은 외부적 요인 보다는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에 대한 정부 및 고용주들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재정수지 흑자구조 지속 전망

-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불가리아는 지속적인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이는 주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에 기인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통화위원회 (Currency Board)* 체제가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큰 역할을 하고 것으로 분석됨.

* 중앙은행은 총 금융부채(total monetary liabilities) 규모 이상의 외환보유액 유지

- 2007년에는 법인세율 인하(15%→10%) 및 사회분담금 3% 포인트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54%를 기록하였음.

- 2009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을 앞두고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GDP대비 3.5% 이상의 흑자 기록이 전망됨.

* 2008년 상반기 재정수지: 30억 달러 흑자(연간기준 GDP의 5.5% 해당)

2. 경제 구조 · 정책

□ 민간부문 및 서비스업 비중 증가세

- 1989년 이후 민간 부문의 성장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됨. 한편, 지하경제 비중이 아직도 큰 편으로 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이는 3차 산업 중심의 현대식 산업구조로의 이행이라기보다는 부진한 공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발전으로 분석됨.
 - * 2007년 GDP대비 생산비중: 농림수산업 6.3%, 공업 32.3%, 서비스업 61.8%

□ EU 중심 교역구조 및 러시아 의존적 에너지 수입

- EU 회원국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큰 편으로 전체 수입의 52%,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칸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음.
 - * 주요 수출국('07): 터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 * 주요 수입국('07):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 국내 원유 및 가스 자원 부족으로 에너지원 수입이 전체 수입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큰 폭의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세계적 산업주기에 따라 부침이 큰 편인 금속 및 화학관련 제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구조조정, 현대화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수급 추세는 불가리아에 긍정적인 편임. 한편, 천연가스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가스 독점공급업체인 가즈프롬(Gazprom)사에 산업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전통적 수출 주도산업이었던 농업 및 식료품, 담배 등은 점차 퇴조하고 있음.

□ 만연한 부패가 경제발전 지연 요인

- 각종 반부패 관련 기관의 발표에서 루마니아와 더불어 EU 회원국 중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EU 반부패사무소(EU Anti-fraud Office)의 200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다수의 부정·사기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EU 기금 관련 정치권의 각종 스캔들 및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이유로 2008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160억 달러 규모의 EU 기금의 사용을 잠정 중지시킴에 따라 각종 인프라 사업, 농업개발 사업 등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

□ 지속적 투자 호조로 인해 성장잠재력 제고

- 각종 설비 재투자로 인해 2002년 이후 투자재(investment goods)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동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 되면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한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 2007년 총 수입액 중 투자재 비중: 27%
 - * 2007년 주요 투자집중 업종: 제조업 20%, 에너지 17%, 부동산 및 건설업 14%
- 최근 민영화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대비 저렴한 노동력, 신뢰할 수 있는 외환제도 및 기업 친화적 세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FDI 유입액: '05년 3,152백만 유로 → '06년 6,006백만 유로 → '07년 6,517백만 유로
 - * 대 불가리아 주요 FDI 국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벨기에
 - * 2007년 업종별 FDI 유입 비중: 부동산 및 사업관련 서비스 35%, 금융업 32%, 건설업 12%, 도소매업 10%, 제조업 4%

□ 통화위원회 체제로 통화정책 운용 한계,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 강조

- 통화위원회 제도로 인해 불가리아 레바화는 유로화에 페그(peg)되어 있어 중앙은행은 환율 및 금리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및 경기조절에 제한을 받고 있음. 따라서 내수억제에 기초를 둔 재정정책 및 임금정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물가인상 심화에 대응하고 있음.
- 2007년 국내여신 증가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자 2008년 초 중앙은행은 기준율을 8%에서 12%로 인상하고, 시중은행 여신정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신용팽창으로 인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함.

□ 안정적 재정구조 유지 예상

- 2004년 8월 IMF 대기성차관 협약(1.5억 달러 규모, 2007년 3월 종료)에 따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IMF는 2008년 4월 발표한 정기 정책협의(regular policy dialogue) 결과보고서에서 불가리아의 재정정책이 그간 과열된 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기조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
- 2009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되나, 자율적 자재를 통해 지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예상은 여야가 모두 2013년 이전 유로화 도입 목표를 지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 합치를 이루고 있는데 바탕을 둠.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 상 수 지	-1,671	-3,347	-5,659	-8,592	-10,775
경 상 수 지 / G D P	-6.8	-12.3	-17.9	-21.7	-20.9
상 품 수 지	-3,688	-5,450	-7,028	-10,141	-12,611
수 출	9,931	11,754	15,101	18,524	24,796
수 입	13,619	17,204	22,130	28,665	37,407
외 환 보 유 액	8,712	7,992	10,892	16,424	..
총 외 채 잔 액	15,641	15,700	20,925	34,876	45,869
총 외 채 잔 액 / G D P	63.7	57.6	66.1	88.2	88.9
D . S . R .	15.2	22.4	12.5	13.8	15.8

자료: IMF, EIU, World Bank

□ 외환보유액 안정적 증가세 유지

- 통화위원회 체제는 불가리아의 외환보유액 관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고정환율제 채택에 따라 자국 통화가 강세를 띠면서 경상수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동 체제가 경제성장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증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최근 불가리아의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증가, 민간부문의 외화차입 급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화위원회 체제는 유로화 도입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화유동성관련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대외거래 불균형 심화

- 관광업 발달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흑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상품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대비 적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 2008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38억 유로 기록(연간기준 GDP의 21% 전망)
- 2007년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전액 보전하는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흑해 지역 휴양시설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FDI 유입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어서 FDI 유입액의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한 보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06년 17.9% → '07년 21.7% → '08년 20.9%
 - * GDP 대비 FDI 유입: '06년 23.6% → '07년 21.2% → '08년 11.3%

□ 민간부문 외화차입으로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전년대비 총외채 증가율은 67%에 달하였음. 이에, 2007년 말 총수출대비 129%, GDP 대비 88% 수준의 총외채잔액을 보유하게 되어 외채는 불가리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다만, 이러한 외채 급증은 주로 민간은행이 국내 여신 확대를 위해 해외로부터 대규모 재원을 차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계 은행이 모회사로부터의 차입한 경우가 큰 비중을 구성하고 있어 국제 금융 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변동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민간부문 국내여신증가율: '07년 62.5% → '08년(전망) 37.0%
- 한편, 건실한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2006~07년 동안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는 등 정부의 외채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 말 40억 달러 수준이고, 2008년 정부는 은행여신정책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총외채 증가율이 32%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 정부외채 규모: '00년 88억 유로 → '05년 44억 유로 → '07년 30억 유로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차기 총선까지 연립정부 유지 예상

- 2005년 6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사회당(BSP)를 주축으로 안정 진보국민운동당(NMSP), 권리자유운동당(MRF)의 3개 정당이 2005년 8월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음.
- 2007년 EU 가입 이후, 사회당 소속 정관계 인사들의 정경유착 스캔들로 대중 지지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부터 중도 우파 성향으로 사회당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이던 NMSP 소속 소수의원들이 연이어 탈당하면서 연정의 결속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나, 2009년 중반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까지는 현 연립정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시민당(CEDB)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

- 시민당은 소피아(Sofia) 시장인 보이코 보리소프(Boiko Borisov)*의 주도하에 2006년 12월 창당된 우파 정당으로 2007년 두 차례의 선거(유럽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사회당에 버금가는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함.

* 200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재선 성공

- 각종 스캔들로 인한 사회당의 지지율 하락, 연정의 제2당인 NMSP의 일부 의원 탈당 등에 힘을 얻어 보리소프 시장은 조기총선 실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2007년 1월, EU 가입

- 2005년 4월 EU 가입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6년 11월 EU 의회의 승인으로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더불어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함.

- 불가리아는 EU 가입 후, 가입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법부 독립 및 신뢰성 제고, 부패 및 조직적 범죄 경감 등 개혁에 대한 이행 상황 보고서를 6개월마다 EU 집행위원회 앞 제출하여 점검받고 있음.

□ 주변국과의 지역협력 강화 노력

- 발칸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등 발칸 지역협력체관련 회의를 적극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동부 유럽지역의 각종 정치·경제협력기구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 '07. 1월부터 Central European Initiative(CEI) 의장직 수임
- * '07. 5월부터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SEECP) 의장직 수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률 하락으로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 해소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최근에는 건설·의료·소매업 등 일부 부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마저 보고 되고 있음. 한편, 최근 건설업 성장 둔화 및 공공부문 인력축소 정책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노동력 부족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실업률 추이: '06년 9.6% → '07년 7.7% → '08. 7월 6.0%

- 건설업에 집중된 지하경제 노동력이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공식 경제인구로 전환될 경우에는 실업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법인세율 단일화, 2008년 개인 소득세율 인하

□ 2009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

- 2008년 8월, 낙농업자들은 최근 사료 값 급등 등을 사유로 정부의 보조금 확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이에 47백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지급은 EU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향후 약속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9년 중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도로건설업 및 의료 부문 종사자들의 더욱 거센 임금인상 요구가 예상됨.

□ EU기금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 발표

- 200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부패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가리아 앞 배정된 EU기금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관리시스템 개선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기금 사용을 재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음.
-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사법 개혁, 부패 및 조직적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한 80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음. 동 조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각 조직의 유기적 협조 체계, 내무부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2009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민족, 종교 등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가능성 미미

- 주변 발칸지역과 비교했을 때, 민족, 종교, 언어가 안정적으로 구성된 편이며, 소수 루마니아 인에 대한 잠재적 적대감이 있다고는 하나 1980년대 정부의 동화정책 이후 민족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한 적은 없음.

* 민족구성: 불가리아인 84%, 터키인 9%, 루마니아인 5%

* 종교구성: 기독교 84%(대부분 동방정교), 이슬람교 12%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중 가장 하위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 면에서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민간부문 신용팽창, 사회구조 면에서는 사법부 개혁 미진 및 부패 만연 등의 요소가 등급 상향조정을 가로막고 있음.

- 특히, ICRG 발표 순위가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물가 상승 심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면서 금융 및 경제부문의 위험성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임.
-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2006년 이후 등급 변화는 없었으나, Moody's에서 2008년 9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변경 발표하였음. Moody's는 불가리아의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지나치다고 분석한 반면, 불가리아 경제는 현 상황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하였음.
 - o S&P: BBB-(2004. 6) → BBB(2005. 10) → BBB+(2006.10)
 - o Moody's: Ba2(2003. 6) → Ba1(2005. 12) → Baa3(2006. 3)
 - o Fitch: BB+(2003. 7) → BBB-(2004. 8) → BBB(2005. 8)
 - o OECD: 5등급(2002. 1) → 4등급(2004. 1) → 3등급(2007.1)
 - o ICRG : 69/140(2006. 7) → 65/140(2007. 1) → 89/140(2008. 8)
 - o Euromoney: 57/185(2007. 3) → 59/185(2007. 9) → 58/185(2008. 3)
 - o I. I.: 57/174(2007. 3) → 58/174(2007. 9) → 59/174(2008.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실적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1992년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에 이어, 1994년에는 런던 클럽에서 상업채무 감면 조치를 받은 적 있음.

- 1997년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액을 통해 IMF 대기성 차관 등 정부 외채를 조기상환한 바 있어 외채상환 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소폭 증가, 수출초과 기조 유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8	주요품목
수출	193	181	191	116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입	24	57	37	49	동제품, 반도체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8년 6월말)

- 총 9개 신규 현지법인 설립, 60백만 달러 총투자 실적 기록

V. 종합의견

- 경제 성장세 및 재정수지 흑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경제적 강점이고, 상품수입의 대부분이 투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산업 기반 발전에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반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7년 민간부문의 여신 확대로 그간 정부의 내수억제 정책을 바탕으로 유지된 물가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외채관련 지표들도 악화 추세임.
- 각종 비리 스캔들로 연정내 다수당인 사회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시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어 조기 총선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나, 2009년 중반으로 예정된 총선 전까지는 현재의 연립정부가 유지되어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2006년 이후 불가리아 국가 신용도 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OECD는 2007년 불가리아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3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시킨 반면, ICRG는 2008년 들어 불가리아의 신용도 순위를 큰 폭으로 하락시켜 각 기관의 불가리아 국가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